

사무엘하 20. '세바'의 반역과 아벨 성을 구한 한 지혜로운 여인' (삼하 20 장 1-24 절)

들어가기

본 장은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을 아직 채 완전히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일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 또 한번 같은 동족끼리 싸워야 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아벨 성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현명한 대처로 '세바'의 반란은 극적으로 마무리 되며 큰 피해 없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1.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 (1-2 절)

1) '세바'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로 '시므이'와 같은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 ✧ 특별히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불량배였다고 성경이 기록.
 -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들이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다윗'에게서 얻을 것도 없으므로 '다윗'을 떠나자고 충동질함.
- ✧ 곧 그는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간의 갈등을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이간질시켜 '다윗'의 권위를 낮추고,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음.
 - 이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간의 일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무시한 것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 ✧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의 부추김에 넘어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랐다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불안과 불평들, 원망의 마음들을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부추기고 움직여서 결국 우리의 믿음생활을 후퇴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 장 22 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맘 속에서 쓴 뿌리가 되는 상처나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 불평이나 불만, 원망의 순간을 만나면 예수님께 달려 나가 그 마음을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1)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한 '다윗'은 먼저 아들 '압살롬'과 동침한 10 명의 후궁들을 평생토록 별실에 가두고, 영원히 저들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3 절)

- ✧ 우선 후궁들에 대한 율법적 판단은 무엇이 가능할까?
 - 레위기 18 장과 20 장의 '간음법'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할 것.
 - 신명기 24 장 1 절 -> 이 일을 '아내에게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한다면 이혼증서를 주어 쫓아낼 것.

✧ 그럼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 몇몇 학자들의 견해

- 왕국을 다시금 새롭게 정비해야 할 ‘다윗’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어야 했을 것이고, 이때 저들을 별체로 위배한 것은 나름 최선의 결정이 아닐까? 추측.

✧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됐다는 것!

- 비록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 들여지긴 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상처는 ‘다윗’이 평생 동안 지고 살아야 했음을 잊지 말자.

2.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3 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시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14 절)

1) ‘아마사’는 ‘다윗’의 명대로 3 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반란을 진압해 보려고 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4-5 절)

✧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다시금 반란군을 진압할 지휘관으로 세워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세바’가 안전한 요새로 피하기 전 진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6-7 절)

✧ 그러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

✧ 여기서 다시금 당시 ‘요압’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확인하게 됨!

- ‘아비새’의 말에 단번에 모일 수 있었던 저들을 보면서 이는 결국 ‘아마사’를 통해 내린 ‘다윗’의 왕명이 의도적으로 무시된 것임을 추측하게 함.

3) ‘요압’은 자신을 맞이하는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8-10 절)

✧ ‘아마사’를 죽이려는 ‘요압’의 치밀함을 발견.

- ‘아마사’ 앞에서 자신의 칼이 칼집에서 우연히 떨어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그 칼을 잡는 것으로 ‘아마사’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양팔 벌려 인사하는 ‘아마사’를 찔러 죽음!
- 성경은 그가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었다고 기록.

✧ 결국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족 ‘아마사’까지 죽이며, 3 번째 살인을 행함!

- 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헤브론 성문 안에서 죽음 (삼하 3:27)
- ②.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음 (삼하 18:14)
- ③. ‘다윗’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음 (삼하 20:10)

✧ 참고: 아마사가 누구인가? -> 역대상 2 장 13-17 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족보),

- ‘이새’의 자녀는 딸 2 (스루야, 아비가일), 아들 7 (일곱째가 다윗!)
- ‘스루야’가 낳은 아들 -> ‘요압’, ‘아비새’, ‘아사헬’
-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 ‘아마사’

- 4)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을 때, 주목할 장면 하나! -> ‘요압’의 충성스런 부하 하나가 등장!
 - ①.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그의 지휘권을 안정시킴!
 - 11 절, ‘... ,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 ②. ‘아마사’의 죽음을 은폐시킴!
 - 12 절, ‘... ,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 ✧ 이는 어쩌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바’가 아닐까?
 - 그는 백성들을 회유하고 충동해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요압’을 따르게 만들고, 그의 죄를 정당화 시키어 감추려고 한 자!
 - 그러나 그가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요압’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시체를 보이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 5) 이 무렵 ‘세바’는 민심을 얻고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찾아 다니며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14 절)
 - ✧ 학자들 -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바’를 지지해 반란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
 - ✧ 당시 ‘세바’는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형성한 후 아벨 성을 반란의 거점으로 잡았음.
3. 그런데 이때 아벨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세바’의 반란은 힘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5-22 절)
- 1) ‘요압’은 ‘세바’가 있는 아벨 성을 완전히 포위한 뒤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5 절)
 - ✧ 이때 ‘요압’은 아벨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공격함
 - 어떤 학자들 - 토성의 높이가 성의 외벽보다 높았을 것.
- 2) ‘요압’의 군사들의 의해 성벽이 무너져갈 때, 아벨 성의 한 여인이 나와 ‘요압’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 ✧ 여인의 대화의 내용은?
 - ①. 우선 ‘아벨’성의 역사적 의미
 - ‘옛 사람들은 흔히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음!’
 - 그러므로 아벨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 ②. 자신을 포함한 아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 중 하나.
 - ③. ‘아벨’성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알 것!
 -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성과 성의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느냐? 따졌다는 것!
- 3)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의 말에 ‘요압’은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내주면 즉시 군대를 철수 시키고 전투를 멈출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21 절)

4)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지혜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목을 베어 성밖으로 던졌고, ‘요압’은 약속대로 전투를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2 절)

☆ 참고: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름없는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들이 등장해 나라를 구함!

- 잠언 11 장 11 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고 했고, 14 장 1 절에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고 했음.
- 우리 모두 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처럼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자.

4. 이로 인해 ‘압살롬’의 반란을 시작으로 위기를 맞은 ‘다윗’ 왕국은 다시 안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좀더 구체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3-26 절)

1) 반란 전에 없었던 새로운 행정기구들이 만들어지며 구체적인 국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①. 국방부 : ‘요압’ ->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됨
- ②. 자치구 :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됨
- ③. 세무부 : ‘아도람’ -> 감역관이 됨 (감역관은 세금을 징수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관을 의미)
- ④. 역사/문화부 :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 사관이 됨
- ⑤. 행정부 : ‘스와’ -> 서기관이 됨 :
- ⑥. 종교부 : ‘사독’과 ‘아비아달’ -> 대제사장이 됨
- ⑦. 외무부 : 야일 사람 ‘이라’ -> ‘다윗’의 대신이 됨

2) 그럼 왜 다윗은 반란을 진압 한 이후 이런 국가 체계를 만들고 정비했을까?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